하상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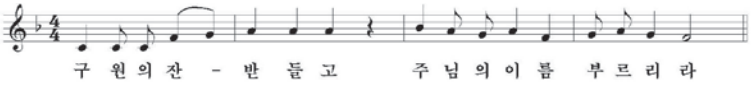
2018년 6월 3일 (나해) 제1695호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제1독서] ····· 탈출 24,3-8

[화답송] ····· 시편 116(114—115),12-13.15와 16ㄷㄹ.17-18 (◎ 13)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 히브 9,11-15

[부속가]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뉨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뉜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예수님 계시옴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 14,12-16.22-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169] 사랑의 성사
- 파견성가: [201] 은총의 샘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12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16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en they sacrificed the Passover lamb, Jesus' disciples said to him,
"Where do you want us to go and prepare for you to eat the Passover?"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Go into the city and a man will meet you, carrying a jar of water.
Follow him. Wherever he enters, say to the master of the house,
'The Teacher says, "Where is my guest room where I may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Then he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and ready.
Make the preparations for us there."
The disciples then went off, entered the city, and found it just as he had told them;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
While they were eating, he took bread, said the blessing, broke it, gave it to them, and said,
"Take it; this is my body."
Then he took a cup, gave thanks, and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will be shed for many.
Amen, I say to you, I shall not drink again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day when I drink it new in the kingdom of God."
Then, after singi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묵상

모세의 계약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로 암송아지, 염소와 황소를 희생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신약의 계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약의 중개자가 되시고 속량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중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수고를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포도의 즙처럼 우리가 흘리는 땀과 피는 주님 대전에 아름다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반복하여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단 한 번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속죄와 친교의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와 친교의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바치는 미사성제로 완전한 계약이 지속되며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봉헌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복음과 성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후안 후아네스(Juan de Juanes, 1510-1579)로 널리 알려진 빈센테 후안 마시프(Vicente Juan Macip)는 발렌시아에 자리 잡은 예술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유명했던 화가 빈센테 마시프(Vicente Macip)였고, 그는 한 때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으며, '스페인의 라파엘로'로 불렸을 정도로 16세기 후반에 발렌시아의 주요 화가로 성장했다. 그의 그림은 약간 매너리즘 회화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상화된 인물들,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안정된 구성, 라파엘로의 작품에 보이는 우아하고 온화한 표현이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 또 옷 주름, 곱슬머리, 접시와 그릇에 비치는 빛의 묘사와 같은 능숙한 기교는 플랑드르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이다.

〈최후의 만찬〉, 후안 후아네스

그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의 장면이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4.19)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들어 보이며 가슴에 손을 대고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귀한 몸이고,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나누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는 칼과 잘려진 빵들이 있고, 성작과 포도주가 담긴 유리병이 있으며, 성작 앞에는 빈 주석 접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토 11,25)

아마도 성작 앞에 빈 주석 접시가 있는 것은 이제는 어린양의 피로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새 계약을 맺으므로 더 이상 파스카의 어린양이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성변용의 현장에 있다. 그들은 간절한듯 성체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 예수님 오른편에는 베드로, 안드레아, (大)야고보가 있고, 그들 뒤로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타데오가 있으며, 예수님 왼편에는 사도 요한, (小)야고보, 토마스가 있고, 그들 뒤에 시몬과 필립보가 서 있다. 그들의 후광에 금색으로 이름을 새겨 넣어 그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끝에서 등을 보이는 유다의 머리에는 후광도 없고 성변화에 대한 감동도 없다. 그는 몸을 비틀어 밖으로 나가려 한다. 그리고 돈주머니를 챙기고 있다. 돈주머니 옆에 있는 의자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유다 이스카리옷"
우리는 그를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화가는 그의 발 옆에 세족례에 썼던 대야를 그려넣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그러면 사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한 말씀만 하소서

바오로딸 콘텐츠

당신이 아니라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바라만 보아도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미사 경본 중에)

임의준 신부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다.

예수 성심 공경은 중세 때부터 내려왔는데, 1856년 비오 9세 교황이 이를 권장하면서 예수 성심 축일을 전례력에 도입하였고, 1956년 비오 12세 교황이 예수 성심 공경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회칙을 반포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비오 12세 교황은 이 회칙에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그리스도교의 실질적인 신앙 고백 그 전부이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마태 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다.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을 통하여 절정에 이른다.

교회는 이 예수 성심 성월에 특별히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한다.

〈예수 성심〉, 최봉자 수녀 作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6월 8일 (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예수 성심 대축일 묵상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예수 성심께 나아가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기리는 축일입니다. '심장'은 인간의 감정과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의 심장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 줍니다(요한 15,13 참조).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미사 감사송에서 "심장이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 하고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 피는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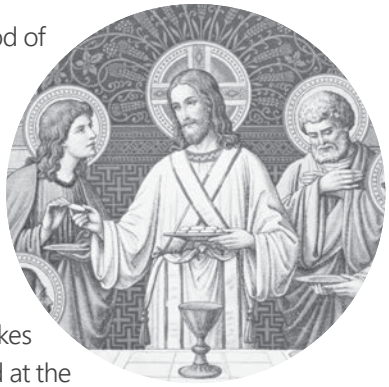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이면서도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측은지심을 복음의 여러 대목에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요한 11,35 참조). 온몸이 피땀에 젖으실 정도로 겟세마니에서 근심에 짓눌리셨습니다(루카 22,44 참조).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며 우셨습니다(루카 19,41 참조).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인간의 지각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심연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예수 성심께 나아가 속죄의 선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Feast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Corpus Christi)

June 3, 2018

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



Today we celebrate the feast of 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 in the Holy Eucharist.

At the Last Supper, Jesus changed bread and wine into His own Body and Blood. He has the power to do this because He is God. He did this because He wanted to stay with us even after He died and went into Heaven.

Jesus comes to us in every Mass. The priest takes the place of Jesus, saying the words that Jesus said at the Last Supper, and the bread and wine become the real Body and Blood, Soul and Divinity of Jesus even though they still look like bread and wine.

How do I receive Communion well?

1. Be ready!
Think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Make sure that you don't have any big sins on your soul. If you do, then go to confession first.

2. Don't eat or drink anything other than water or medicine for an hour before going to Holy Communion.
This is a sign of respect for Our Lord.

3. After receiving Holy Communion, take some time to thank Jesus for coming to you and talk to Him. He is your best friend and loves spending time with you.

〈www.thekidsbulletin.com〉

ANNOUNCEMENT

1. Knights of Columbus Essay Contest

- **Open to all parish children grades from 1st thru 12th.**
- **Title :**
  What does Easter and resurrection of Christ mean to me as a Korean American Catholic?
- **1st - 3rd graders - drawing/painting**
- **4th-12th graders- writing**
- **Location & Deadline for Submission: Sunday School Office** by **Sunday, June 10**

2. CCD Bible Quiz Contest

- **June 10,** during regular Sunday School Hours

3. CCD End-of-year Outdoor Mass & Picnic

- **June 17, 9am-1:30pm,**
  Frying Pan Farm Visitor Center She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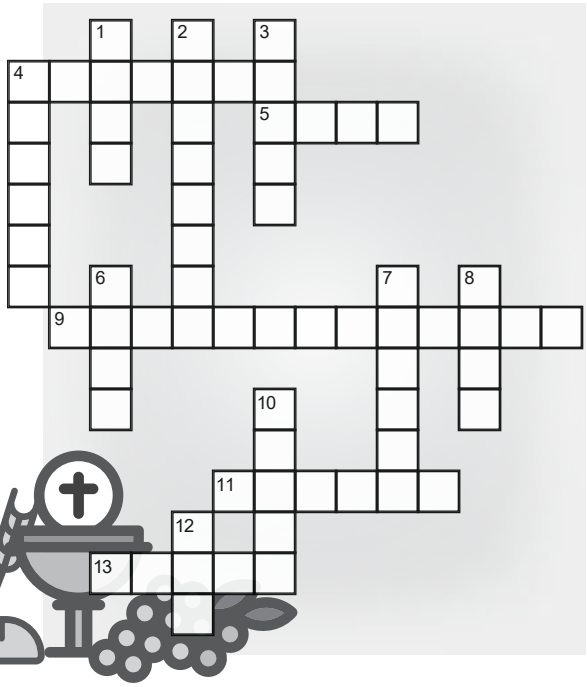
4. Save the dates for CCD Summer Camp

- **August 3 - August 5,**
  Rising 4th thru Rising 8th graders
- More detail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via email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crossword puzzle

Tips
·**A** : Across
·**D** : Down
ex) **7D** is #**7 Down**

At the Last □□□□□□(7D), after he had given thanks, □□□□□(3D) took □□□□□(10D) and said, "Take and eat . This is my □□□□(6D)." Then, taking the chalice of □□□□(8D), he said, "Take this, all of you, drink from it. This is the □□□□□□□(4A) of my □□□□□(A13), the blood of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It will be poured out for you and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Do this in □□□□□□(A11) of me."
That was the first □□□□(1D). When you go to □□□□ □□□□□□□□□□(9A), you really receive the Body, Blood, □□□□(5A) and □□□□□□□□□(2D) of □□□□□□(4D), who is □□□(12D)!



• Word List •

BLOOD BODY BREAD CHALICE CHRIST DIVINITY GOD
HOLY COMMUNION JESUS MASS SOUL SUPPER WINE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제10회 동중부 성령대회 본당에서 개최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에제 18,31)

제10회 동중부 성령대회가 5월 27일(일)과 28일(월) 이틀에 걸쳐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에제 18:31)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열린 성령대회는 찬양과 율동, 성체현시, 치유와 안수 예절 등 매 순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청주교구, 성령쇄신 지도)는 특강을 통해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몸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창조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과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은혜롭고 멋진 잔치였다"며 "앞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고 고백했다. 안진이 제올지아(본당 성령기도회장) 자매는 "성령대회 내내 너무 행복했고 이토록 많은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성령대회에는 버지니아를 비롯해 메릴랜드와 볼티모어, 해리스버그, 햄튼 그리고 리치몬드 등에서 350여 명이 참가했다.

성모의 밤 행사 - 5월 25일 (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가장 고운 꽃 모아 성전 꾸미오며
기쁜 노래 부르며 나를 드리오리

1 첫 영성체식
- 첫 영성체를 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6월 3일(일) 오전 11:40 미사 중
- 축하식 : 미사 후 친교실(A-1,2)

2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6월 3일(일) 오전 11:30(B-1,2)

3 청소년 사도회
- 일시 : 6월 3일(일) 오후 1시(A-1,2)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6월 3일(일) 오후 1시(B-1)

5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종강식
- 일시 : 6월 8일(금) 오전 11:30(친교실)

6 성소와 성소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사제와 수도 성소 그리고 성소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 미사 : 6월 8일(금) 오후 7:30 (미사 후 묵주기도)
- 문의 : 성소후원회 (703)403-1185

7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6월 9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12학년 졸업생 축하 파티(Senior Banquet)
- 일시 : 6월 9일(토) 오후 7시 - 10시(친교실)
- 문의 : 이희존 교감 (703)627-0799

9 단체장 회의
- 일시 : 6월 10일(일) 오전 11:30(B-3,4)

10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시(B-3,4)

11 독서단 정기총회
-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시(성당)
- 대상 : 평일미사, 토요 특전미사, 일요일 8시/10시 미사 독서자 및 해설자
- 문의 : 강지우 소피아 (571)201-6819

12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 6월 10일(일) 오후 1시(교무실)

13 K of C 장학금 에세이 콘테스트
- 에세이 제목 : "What does Easter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means to me as a Korean American Catholic?"
- 에세이 마감 : 6월 10일(일)
- 발표 : 6월 17일(일) 11:40분 미사 중

14 효도 한마당 행사
-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1:40(친교실)
- 어른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 분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분)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15 뿌깔파 단기선교 기금 모금
- 매년 후원해 주시는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정성어린 후원금을 기다립니다.
- 기금 모금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16 CYO Summer Camp
- 일시 : 7월 19일(목) - 7월 22일(일)
  Camp Round Meadow, MD
- 신청 : 8시, 10시, 11:40 미사 후(친교실)
- 등록비 : 1인 - $110, 2인 이상 - $80

17 60대 교우(형제, 자매) 친교 모임
- 일시 : 6월 17일(일) 오전 11:40(나눔터)
- 문의 : 강세원 바오로 (703)489-3938

18 '사랑 나눔 캠페인'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안내
- 일시 : 6월 9일, 6월 10일 미사 중
- 주최 :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이사장 조성목) / 한국일보사 (사장 이양호)
- 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마련된 기금은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관리하에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 (Safety Net Project)'를 통해 갑작스런 실직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빈곤층 한인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구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자립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3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첫 영성체(오전 11:40 미사 중),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성 요셉 아버지학교 교육(오전 11:30, 하상관), 주일학교 5학년 나눔터 사용(11:40 미사 후), 뿌깔파 미팅(오전 11:30, 하상관 #10)
4일(월)	연중 제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5일(화)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6일(수)	연중 제9주간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A-1), 바오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7일(목)	연중 제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8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CLC 모임(오후 8시),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9일(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 야유회(오후 1시, 나눔터/체육관), Senior Banquet(오후 7시-10시, 친교실)
6월 10일(일)	연중 제10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교무실), Active Senior 교육(오전 11:30-오후 5시), 독서단 정기총회(오후 1시, 본당), 재속 프란치스코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파티마 세계직 나눔터 사용(오전 11:30-오후 4시)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9주간 : 2 열왕 1-7, 요한 11-12**

KACM TV 하이라이트

6월 7일(목) 오후 5:00-6:00
6월 8일(금) 오후 8:00-9:00
6월 10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별기획/ 치유 - 성모병원의 역사 (4) :** 한국 가톨릭 출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준공된 성모병원의 초창기 어려움과 발전 과정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5월 27일(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헌금	$ 6,908.00
교무금	$ 8,0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204.00
특별헌금	$ 374.00
2차헌금	$ 2,220.00
합계	**$ 20,75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일반 : 사회 관계망

사회 관계망이 다른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 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벅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 이냐시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